



◇지을스님 등 수행자들이 삼보일배를 하며 힘겹게 천성산을 오르고 있다.

### “이 육신버려 천성산 산다면...”

#### 내원사 스님 등 화엄벌서 삼보일배 마쳐

#### 부안해폐기장 건설반대

#### 진원스님등 삼보일배 시작

“이제 이 땅에 뭇 생명들의 신음소리 그치지 않으니 이 무상한 육신을 버려 천성산의 많은 생명 살릴 수 있다면 기꺼이 저자거리에 나가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10월 3일 천성산 화엄벌에서 열린 삼보일배 회향 행사에서 지을스님은 의지를 이렇게 피력했다. 천성산을 떠나 다시 부산시청으로 돌아가 단식을 시작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담은 스님의 선언에 행사에 참석한 3백여 대중들이 숙연해졌다.

이날 행사는 9월26일 부산역을 출발했던 지을스님과 내원사 대중스님

들의 삼보일배 회향행사였다. 이날 회향행사는 근원을 향한 퍼포먼스, 풀꽃진헌제, 생명에 보내는 편지 등 다양하게 마련됐다.

한편 범부안군민대책위원회도 10월 1일 부안 해폐기장 건설 반대와 정부의 핵에너지 정책의 근본적 전환 등을 요구하며 삼보일배를 시작했다. 전북 부안에서 전주까지 총 49Km구간에서 진행되는 삼보일배에는 진원스님(내소사 주지), 김인경 교무(원불교 부안교당) 등 대책위 공동대표 6명과 문규현 신부를 비롯해 학생, 주민 1백여 명이 참여했다.

삼보일배 행렬은 김제시와 완주군을 거쳐 11일 전주 도청 앞에서 핵폐기장 건설 철회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천미희 · 이동혁 기자

## 전통사찰들 화재 속수무책

전통사찰 등 불교문화재 대부분이 화재에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알려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9월 30일 원주시 치악산 구룡사 대웅전(강원도 유형문화재 제24호)에 누전으로 추정되는 불이 나

3시간 만에 잿더미로 변했다. 오후 9시경 갑자기 정전이 된 뒤 대웅전에서 불이 번지자 구룡사 속직실에 있던 이모

(58)씨가 소화기로 자체진화를 시도했지만 역부족이었으며, 인근에는 소화전 시설도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 신고 받은 소방대가 출동했으나, 좁은 산길에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 피해가 컸다. 이번에 화재가 발생한 구룡사 대웅전은 다행히 화재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1일 1차 감시결과 누전으로 판단하고 있다.

전국사찰의 화재는 올해 들어서만 신고 받은 소방대가 출동했으나, 좁은 산길에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 피해가 컸다. 이번에 화재가 발생한 구룡사 대웅전은 다행히 화재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1일 1차 감시결과 누전으로 판단하고 있다.

전국사찰의 화재는 올해 들어서만 신고 받은 소방대가 출동했으나, 좁은 산길에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 피해가 컸다. 이번에 화재가 발생한 구룡사 대웅전은 다행히 화재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1일 1차 감시결과 누전으로 판단하고 있다.

전국사찰의 화재는 올해 들어서만 신고 받은 소방대가 출동했으나, 좁은 산길에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 피해가 컸다. 이번에 화재가 발생한 구룡사 대웅전은 다행히 화재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1일 1차 감시결과 누전으로 판단하고 있다.

전국사찰의 화재는 올해 들어서만 신고 받은 소방대가 출동했으나, 좁은 산길에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 피해가 컸다. 이번에 화재가 발생한 구룡사 대웅전은 다행히 화재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1일 1차 감시결과 누전으로 판단하고 있다.

만 구룡사를 비롯 봉화 죽서사, 구례 화엄사, 울진 지장사, 문경시 문수사 등 5곳에서 발생했다. 이로 인해 전각과 1백여점에 이르는 불상, 탕화 등의 문화재가 전소되는 피해를 입었다.

산중사찰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문화재 피해는 심각하다. 대부분 오래된 목조건물인데다 진입로가

교문화재의 소실을 부채질 하고 있다. 현행 문화보호법상에도 특별하게 소화장비 설치와 관련해 규정을 하고 있지 않다. 소방관련 법에도 소방설비 기준조차 없다.

대부분의 문화재사찰이 문화재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소화기만 설치하다 보니 실용성이 떨어지는 상태다. 문화재 사찰에서 방화장치 등을 설치할 때 필요한 장비의 최소 사양과 요령 등을 담은 방화시설 설치 기준이 없다는 것이다.

조계종 문화부 이상규 과장은 “목조건물이 많은 사찰은 방화 부분이 취약하지만 법규정이 없는 상황인 만큼 해당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방화시스템을 설치하는 수밖에 없다. 사찰단을 대상으로 하는 화재보험의 개발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wkim@buddhapia.com

#### 올해 구룡사등 5곳...문화재 100여점 소실

#### 대부분 목조-진입로 좁아 초기진화 힘들어

#### “소방관련 법령 제정·사찰화재보험 시급”

협소해 소방차를 통한 초기진화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카펫 등 인화성 물질과 전기로 가열된 인등과 촛불 등을 사용하고 있어 화재위험도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당국은 미비한 법규정을 방치하고 있으며, 소방당국의 관리소홀 또한 불

과 승가사 신도회 김옥희 수석부회장이 출석할 예정이다.

재영수 변호사는 “최화장이 자발적으로 불사 시주를 승낙한 만큼 증언만 해준다면 시주금의 대가성이 부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동혁 기자

### “청정불심으로 시주권유 응했다”

#### SK, 이남기 前공정위장 1차 항소심서

#### 국립공원내 산림협약

#### 녹색연합 등 파기요청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재판장 오세립은 9월 30일 이남기 전 공정거래위원장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3차 뇌물수수)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 변호인측은 불교, 개신교 등 종교단체들의 기부문화 관장에 대한 탄원서를 재판부에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변호인측은 이남기 전 공정위장

#### 시민환경단체들은 환경부와 산림청이 8월 20일 체결한 산림협약이 국립공원 자연생태계는 물론, 문화자원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산림협약 파기 △인공조림지 및 신규 편입지역만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협력을 마련 △국립공원 관리 및 생태계 연구·보존활동에 전문가와 관련단체 의견 반영할 것 등을 제안했다.

김은경 기자

### ‘다윈, 불교에 귀의하다’ 이색논문

#### 최재천교수, 불교생태학 세미나서 발표

“자연, 환경인가 주체인가”라는 주제의 제2차 불교생태학 세미나가 10월 14일 동국대에서 열린다.

이번 세미나는 불교학, 윤리학, 물리학, 생물학, 중앙철학, 서양철학, 종교학의 각 분야가 ‘자연’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발표로 이뤄진다.

최재천 교수는 ‘다윈, 불교에 귀의하다’라는 이색적인 제목의 논문을 발표한다. 최 교수는 불교가 생태학적 존재의 개발에 특별한 근거를 제공한다. 철학자 피터 마셜의 주장을 들며 ‘부파불교의 입감연기(業感緣起) 개념은 다분히 진화론적’이라

고 말한다. ‘나’라는 존재가 오음(五陰)의 집합체에 불과하다는 무아설은 생명체를 이루는 물질이 죽고과 더불어 소멸하지만 새로운 생명체에 대한 유전정보를 담고 있는 유전자는 영원히 살아남을 수 있다는 진화생물학의 원리와 흡사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최 교수는 “생명체가 해체되어 죽어도 업(業)의 힘으로 새로운 집합체가 만들어져 윤회한다는 업의 상속 역시 태초부터 지금까지 온갖 형태의 몸을 빌려 복제 실험을 거듭해온 DNA의 활동을 연상케 한다”고 설명했다. 오유진 기자



◇호국의선사에서 스님들과 군장병들이 천도재를 봉행하는 모습.

#### 호국 의선사 창건 30주년

#### 호국영령 천도대제 봉행

육군 노도부대 호국의선사(주지 지용)는 창건 30주년을 맞아 9월 30일 호국영령 천도대제를 봉행했다. 청봉문도회와 대원회, 양평사암연

합회, 노도부대가 공동으로 개최한 이날 천도제는 영산재 의식에 따라 대령, 관육, 상단관공에 이어 천도법회, 관육시 등으로 진행됐다.

한편, 청봉문도회, 대원회, 양평사암연 스님들은 행사를 마친 뒤 노도부대 장병들을 위한, 에어컨, 냉장고 등 위문품을 전달했다. 이동혁 기자

### 세 스님의 ‘돌출발언’

#### 목탁소리

한명우 (취재1부 차장)



지난 9월 19일과 24일 조계종 교구본사 주지스님들이 두 차례로 나눠 영부인 권양숙 여사와 청와대에서 오찬을 함께 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두 스님이 북한산 관동도로 문제와 관련해 불교계 경서와는 전혀 다른 ‘돌출발언’을 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청와대 오찬에 참석했던 한 스님은 “19일 오찬에서 모 스님이 ‘경제가 어려운데(북한산 문제)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는 말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또 “24일 오찬

에서도 한 스님이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을 왜 고집하는지 모르겠다”는 요지의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가운데에서도 어른인 모 스님도 최근 총회의원들과의 모임에서 “환경문제 말고 인권 등 사회적 문제가 많은데 왜 그렇게 환경에만 집착하는지 모르겠다”는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구본사 주지와 중앙종회의원은 한국불교의 리더그룹에 속해 있는 지도자들이다. 그런 스님들이 불교계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북한산 문제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는 것은 실로 실망스러운 일이다.

어찌 보면 북한산 관동도로가 풀리느냐 풀리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첨예한 현안을 놓고도 힘을 모으지 못하는 불교계의 오랜 병폐를 어떻게 치유하느냐가 더 시급하다는 생각이 든다. 불교계를 관통하고 있는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고질병’부터 해결할 것을 스님들에게 제안한다.

**자비를 실천하는 나눔의 개인 콜택시입니다.**  
수익금의 일부는 불우 이웃과 장애 복지 단체에 쓰여집니다.

**수도권 미터요금 운행 지역**  
인천국제공항, 일산, 김포, 부천, 안양, 평촌, 군포, 산본, 성남, 분당, 수지, 구성, 하남, 의정부, 남양주 일부

**서울 운불번 나눔 콜택시**  
**1588-5532**

우 · 리 · 절 · 은 · 불 · 자 · 여 · 러 · 분 · 을 · 사 · 랑 · 합 · 니 · 다

### 우리절 정기기도 · 법회

-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 오후 2시 일요법회
-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 오후 2시 자녀 및 입시기도 목련사랑법회
-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 오후 3시 특별대비주기도회
- 매월셋째 화요일 오후 2시 ~ 4시 부산 동 선 회 법 회
- 매월 마지막 토요일 밤 10시 ~ 새벽 3시 대비주 철야기도
- 곤지암터미널 - 우리절 셔틀버스 운행

### 곤지암 우리절

## 부처님의 가피가 충만한 대비주 기도도량 우리절!

우리절은 국내에서는 보기 드문 대비주 기도도량입니다.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 오후 3시, 장장 5시간에 걸쳐 **논스톱으로** 울리는 대비주 기도에 불자님들의 모든 바램을 한 번 멋지게 걸어보십시오.

주(대비주) = 신묘장구대다라니

#### 성지순례

- 출발일 : 10월 22일 수요일 오전 6시 30분
- 대구 팔공산 깃바위

### [III-1030] 기도 봉행

<제3차 1030일 지장천도기도>

- 입재 : 2003년 11월 2일
- 회향 : 2006년 8월 27일

우리모두 원없이 기도합시다

### 고암대종사 15주기 추모제

----- 104주년 탄신제 -----

- 추모제 : 2003년 10월 10일(9.15) 10시
- 탄신제 : 2003년 10월 29일(10.5) 10시

### 제8주년 우리절 개산대제

2003년 10월 7일(화) 10시

개산대제 참석하시는 모든 불자님들에게 우리절에서 마련한 사은품을 드립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우리절 http://www.urijeol.com / 우리절.com / 우리절.net 우)464-881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상림리178 전화 031)763-4674-5 / 팩스 031)763-2150